

2월의 기도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불드소서
 (시편 52장 10~12절)



1. DCEM이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 드립니다. 총재 조용기 목사님께서 2013년 해외성회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2.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 2013년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 준비 가운데 DCEM과 모든 준비 기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4.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5. 2013년 새해에는 주님 안에서 꿈과 소망을 갖고 이 땅의 빛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아멘-

- 성회 안내 -

2013년 3월 6일(수) 일본 센다이에서
 “2013 동북아치유대성회”가 열립니다.

성도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뜨거운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오사카순복음교회, 시가키 시게마사 장로님께서 후원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기복 김양숙 김양호 김정환 김태승 나인규 안은경 안희순 오현주 이규현 이춘자 이형춘 정낙숙 조양자 조중숙 목사(순복음정릉교회) 최인철 한태성 함석숙 Esther Han Jonathan Han Marcia Helena Silva Cabral Lima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용기 목사의 특별 메시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신지에 선수가 미국여자프로골프협회(LPGA)의 브리티시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신지에 선수의 별명이 ‘파이널 퀸’이었는데, 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역전해서 승리하는 파이널 퀸이었습니다. 신지에 선수 아버님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딸로 독실한 크리스천인 신지에 선수는 시합 중에 긴장이 되면 찬송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할 때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원망, 불평, 탄식하면 모든 것이 다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주님이 같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나쁜 것은 좋게 만들어 주시니 좋으므로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수주일과 십일조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규칙적인 기도생활을 하고 죄를 회개하고 감사 찬송하는 생활을 하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이 늘 뜨겁고 강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지식과 긍정적인 꿈과 믿음과 밝고 환한 신앙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주시려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761-6142 / dcem@davidcho.com

‘송구영신예배’ 새해 첫 시간 예배로 시작

조용기 목사 “나의 해(年)가 아닌 하나님의 해(年)를 살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송구영신,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는 기도와 말씀 속에 지난해를 보내고 2013년을 맞이하려는 성도들이 참석한 새해 첫 예배가 1일 0시 여의도 및 직할 성전에서 동시에 열렸다.

이날 송구영신 예배에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성도들에게 “새해를 나의 해(年)가 아닌 하나님의 해(年)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전하였다. 조목사는 “나의 해가 된다면, 나의 힘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염려, 근심, 불안, 초조가 떠나지 않게 된다. 나의 일이라고 여기고 살아갈 때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믿고 순종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해주시므로 우리는 안식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조목사는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그 일

을 성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설렘과 기대 속에 새해를 맞이하려는 성도들로 이날 여의도 일대는 한탄을 방불케 했다. 자리를 잡기 위해 교회를 찾은 성도들로 대성전은 일찌감치 가득 찼고 부속 성전도 성도들로 넘쳐났다.

이영훈 목사는 지난 과거의 아픔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희망, 절대긍정의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자고 독려했다. 이영훈 목사는 ‘뜻대를 향하여’(빌 3:13-14)라는 주제로 새해 첫 말씀을 전하며 무엇보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순복음방송국은 2012년 12월 31일 오후 8시 20분부터 진행된 교회학교 발표와 송구영신

예배를 인터넷으로 중계해 전 세계 네티즌들이 함께 은혜를 받았다. CBS 기독교방송도 송구영신 예배 실황을 케이블 TV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했다.

이날 예배는 한상인 부목사의 사회, 김영운 장로회장의 대표기도, 정길조 안수집사회장의 헌금 기도, 나사렛성가대·솔리스트 앙상블의 찬양 등이 있었다.

한편 송구영신 예배를 앞두고 교회학교 주관으로 영아부부터 고등부, 교회학교 분교의 공연이 펼쳐져 성도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새해를 1시간 앞두고서는 김주하 앵커가 진행한 ‘2012년 순복음종합뉴스’ 영상이 방영돼 성도들은 감사와 은혜, 기적 속에 보낸 한해를 돌아보기도 했다.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열왕기하 6장 14~17절)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를 둘러싸는 원수들은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경쟁자, 궤방하는 자, 원수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항상 원수들과 그들이 주는 어려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들을 극복하고 이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들을 극복하고 살 수가 있었습니까?

1. 환경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마라

오늘 본문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사의 종처럼 눈에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고 절망하면 안됩니다. ‘인간은 천재로 태어나서 세상에서 살다가 죽을 때는 전부 둔재로 죽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은 천재와 같은 존재들인데 세상에 살면서 자꾸 환경만 바라보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결국 둔재가 되어서 세상을 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에서 어두운 면을 찾아보면 어느 곳이나 그러한 면은 있습니다. 우리의 그림자 뒤에도 어두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사의 종처럼 적군을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탄식하지 말고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마음의 두려움은 만병의 근원이며 정신적 감기와 같습니다. 마음의 두려움은 우리에게 파괴적인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감기에 걸리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희망을 잃어버린 불안과 좌절에 빠지게 되어 패배적인 말을 하며 감기처럼 기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안식을 주려고 오시지만 마귀는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옵니다. 마귀의 일은 사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을 아는 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다가오고 두려움이 떠나면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둘러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 우리와 같이 계신 이를 보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 마음 속에 모셔 들이면 우리 주위에 용서와 의의의 은혜가 둘러 진을 칩니다. 또한 성결과 성령충만이 둘러 진치고, 치료와 건강이 둘러 진치고,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이 둘러 진치고, 부활과 영생천국이 둘러 진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의 군대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강하고 담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하시면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어린아이의 가정교사와 같으며, 바람이 없는 것 같으나 언제나 존재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서 조용하게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 허물, 질병, 저주, 절망, 죽음을 가져다 주는 마귀의 권세를 청산하고 우리에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시간이 날 때마다 자주 맡기십시오. 우리는 기도를 통해 마음속에 염려, 근심 되는 것을 아뢰고 또 아뢰며, 맡기고 또 맡기며, 하루종일 그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볼지어다. 세상 끝 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는 플러스인생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3. 눈을 열어 영적 실상을 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마음속에 날 위해 일하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러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쳐다보고 기도하고 아뢰면 주님께서 홀로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모든 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답답하거나 주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하루 종일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하되 마음에 평안이 넘칠 때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모두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희망찬 기대와 꿈을 마음속에 가지면 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행복한 일이 일어난다. 결국 모든 일이 잘된다. 모든 일이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러한 생각과 기대가 부풀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감사는 아무 힘이 없어 보이지만 실상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감사이고, 마귀의 역사를 막는 것도 감사이며,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기도가 나오게 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도 감사입니다. 위기와 고난의 순간마다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고통의 바닷물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항상 우리의 주위에는 하나님의 십자가 군대가 둘러 진 쳐 있습니다. 용서와 성결의 군대가 둘러 진 쳐 있고, 치료와 아브라함의 축복의 군대가 둘러 진 쳐 있으며, 영생복락과 생명의 군대가 둘러 진 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내린 진리의 군대들을 생각하고 소원하고 꿈꾸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에게 그러한 군대의 능력이 역사하여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미 승리하게 되고 고난의 파도를 걸어가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용기 총재 목사님 2013년 신년사

희망의 세대

스위스의 유명한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린’은 유대인입니다. 그는 2차 대전 당시 죽음의 수용소라고 불리던 아우슈비츠에서 나치의 끔찍한 고문을 당했고, 수없이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무서운 시대가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수용소에서 내가 붙잡은 삶의 희망을 세계의 수많은 사람에게 말해주겠다.’ 그는 희망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았고,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자신이 체험한 비극을 기록으로 남겼고, 자신의 생존 이유를 다 음과 같이 서술했습니다. “나치 수용소의 잔혹한 고문과 무서운 형벌, 비인간적인 학대 속에서 나를 생존하게 만든 것은 바로 희망이었다.”

그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삶의 희망을 전하는 위대한 심리학자가 되었습니다. 전

쟁은 끝났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갈구하며 살아갑니다. 실직, 가난, 가정 불화, 이웃과의 단절, 질병과 분노가 여전히 우리 삶 속에 깊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 새해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가지십시오. 절망과 낙심, 두려움은 마음속에서 제하여버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이사야41:10)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땅의 절망과 두려움을 그분의 피 값으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모두 청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꿈과 희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희망의 세대’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이 믿고, 기대하고, 바랐던 희망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희망이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전파되는 복된 한 해를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DCEM 사무총장 시가끼 시게마사 장로 2013년 신년사

성령 안에 거하자!



시가끼 시게마사 장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의 불모지인 인도에서 울려 퍼지는 열정적인 찬양과 뜨거운 기도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작년 11월 28일, 29일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께서 이틀간 남인도 안드라프라데시주의 하이데라바드시 외곽에 마련된 운동장에서 연인원 100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의 축제’란 주제로 대규모 성회를 인도하셨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성회 공터에 모인 인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아, 정말 이들이 간절함으로 복음을 듣기 위해 이곳까지 왔구나! 성령님께서 조목사님을 통해 이 땅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회 둘째 날 조목사님께서 신유 기도를 하실 때,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며, 6년간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인도 성회를 준비하면서 봉착했던 많은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예를 들자면, 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비자를 인도정부에서 승인해주지 않아 인도로 출발하기 3일 전에야 간신히 비자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때 일을 생각하면 눈 앞이 어질합니다. 그로 인해 인간적인 마음에 많이 걱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 러운 마음이 기우였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셨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이미 사도행전 기록에서 끝났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 지난 50년간 한국에도 역사하셨고,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도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며 이루리라’(요15:7)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2013년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거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셨듯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이루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믿음의 성도들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